

5/7/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5 장 1-11 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속 5: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속 5: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절관주** 속 4:2

(속 5: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절관주** 말 4:6

(속 5: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절관주** 말 3:5, 잠 3:33

에바 속의 여인

(속 5: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절관주** 속 1:18, 속 2:1

(속 5:6)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절관주** 암 8:5

(속 5: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속 5:8)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절관주** 호 12:7, 미 6:11

(속 5: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속 5: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속 5: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 환상 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일곱 번째 환상은 예바에 앉은 여인을 시냇 땅으로 옮기는 환상입니다.

여지까지의 환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방인에 대한 심판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는 메세지였다면 이번 환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메세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과거와 같이 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 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그곳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풍요로와지자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토착민들과 혼인을 하였고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다 돈을 사랑하였고 재판을 굽게 하였으며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등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70 년을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슌 5: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슌 5: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두루마리란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일종의 책입니다.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을 뿐더러 인쇄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가로 10 규빗, 세로 20 규빗이나 됩니다.

1 규빗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니까 약 45cm 쯤으로 계산하면 대략 넓이가 4.5m 이고 길이가 9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성소 앞의 주랑 (낭실, 현관)의 크기와 같습니다.

(왕상 6: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왕상 6:3)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주랑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던 곳입니다.

스가랴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슥 5: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언뜻 보기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정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둑질과 맹세가 만연하게 행하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생활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거처가 필요했고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질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맹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전 건축에 대해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귀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맹세도 하면서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비롯해 많은 방해로 성전 재건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한 맹세도 모두 잊은채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범죄를 대표하여 도적질과 맹세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도둑질’은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 5-10 계명을 어긴 것을 대표하여 지적인 것이고, ‘망령되이 행하는 맹세’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4 계명을 어긴 것을 대표하여 지적인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입니다.

(슥 5: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도둑의 집과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셔서 그 집들을 완전히 전소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무와 돌은 집의 주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사른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은 환상을 보여주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단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 성결해져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도 여섯 번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는 경고의 메세지입니다.

스가라는 에바를 봅니다.

(속 5:5)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속 5:6)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유대인들이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약 22 리터 정도의 비교적 큰 그릇입니다.

천사가 스가라가 보는 앞에서 에바의 뚜껑을 여는데 그 안에 곡식 대신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속 5: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은 에바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을 가리켜 악이라고 하며 여인을 다시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악이 더 이상 퍼져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속 5:8)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바와 여인으로 나타내 보이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를 가지고 속임수를 많이 썼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저울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상징으로 에바를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자를 음녀로 표현합니다.

스가랴가 보니 학 같은 날개를 단 또 다른 두 여인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깁니다.

그곳에 집(신전)을 지어 머물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속 5: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속 5: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하 하니

(속 5: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교주의의 본산인 시날 땅으로 옮기십니다.

악을 거룩한 땅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시날 땅은 니므롯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 10: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창 10: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샅다와 라아마와 샅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창 10: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창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 10: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창 10: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시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곳입니다.

이방 종교의 대표격인 바벨론 종교 발생지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죄악과 불신앙과 교만이 관영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집단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탐심이 가득한 자들, 곧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우상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두 환상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할 것과 마지막 날 주님이 계신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떨어질 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참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엇이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다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지위를, 세상의 지식을, 자식을, 남편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시날 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제 곧 하늘의 참 성전이 열릴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은 심판 주로 오셔서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를 가르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알고 마지막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실족하면 끝입니다.

지금부터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삶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죄가 제거된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대로 하늘의 참 성전, 천국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